월요광장

세월호 200일, 살아남은 자의 슬픔

강 용 주
광주트라우마센터장

지난 11월 1일은 세월호 참사 200일째 날입니다. 아직 9명 실종자와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00일을 맞아 팽목항에는 5m 높이의 노란 리본이 세워졌습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 상주모임'이 만든 것이지요. 그 노란 리본 앞에서 유족들과 300여 시민들이 모여 '기억을 새기다'는 이름의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전진할 테니 너희는 꿈에라도 찾아와서 너희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김동혁군의 어머니가 말합니다. 전명선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장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슬픔이 너무 크지만 이제는 힘을 내서 4월 16일의 참혹함, 정부의 재난안전시스템 부재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살아남은 학생은 세월호 재판 증인으로 나와 "선원들의 처벌보다 왜 친구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고 싶다"고 말합니다. 세월호 유족이나 생존학생들이 바라는 것은 진상규명입니다. 세월호는 '왜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나?', '국가는 뭘 하고 있었나?' '세모 그룹 유병언과 관피아들은 어떤 관계였나?' 그 진실을 알지 않고는 4월 16일로부터 단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익히 알듯 천진해운과 관피아가 일으킨 사고에, 승객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국가의 무능력이 겹친 것입니다. 백번 양보해도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은 가해자가 있는 정신질환입니다. 이 말은 가해자에 대한 정의의 실현이 치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상 규명에 입각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 사회는 비로소 4월 16일로부터 한 발짝씩 치유를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가라앉아 버린 대한민국을 버티도록 한 힘, 유가족들과 상처 입은 우리 모두를 일으켜 세운 힘은 "잊지 않을게"라는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그저 큰 '교통사고'에 불과한 것으로 기억시키려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세월호 추모집회 선언문) 중입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트라우마는 참사 그 자체인 일차적 외상만이 아니라 이후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잊지말고 기억합시다.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기억할 의무'는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 사회와 시민들이 져야 할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도무지 잊혀 지지 않는 기억, 그 고통스런 기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에 대한 깊은 연대의식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타인이 헤아려 주는 순간, 비로소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누가 내 속을 알아주겠어요?" 바로 그 속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눈물은 멈추는 것입니다. 잊지 말자고 다짐하는 것은 바로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이들에게 내미는 손, 위로입니다.

한편, 잊지 말자는 것은 잊으라고 하는 것, 잊히기를 바라는 것에 대한 가장 인간다운 저항입니다. 가해자에 가까울수록 진실을 감추고 덮으려 합니다. 국가가 직간접으로 가해의 주체가 될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감추는 것은 물론이고 진실을 파헤치는 것을 반정부 운운하며 억압하고 고립시킵니다. 가해자나 국가의 망각과 지우기에 맞서 기억을 현재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던 사람들,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실은 힘을 얻었다는 것을, 그로 인해 역사가 바뀌어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메고 900km 도보순례를 한 고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씨가 "다 함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 주시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러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질 사람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겁니다.

세월호 참사 200일, 시 한편을 떠올립니다. 나치의 박해를 피해 미국 할리우드로 망명하여 '살아남은' 브레히트가 쓴 시입니다. 역시 나치에 쫓기다가 스페인 국경 근처 피렌체 산맥에서 자살한 친구 발터 벤야민을 추억하며 썼다고 합니다. 진실을 기억하는 일과 동시대인의 책임을 떠올립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막지 못한 책임만 아니라, 그 불행의 결과를 오랫동안 계속되도록 한 책임입니다.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브레히트 '살아남은 자의 슬픔')

법조칼럼

자장면 배달하는 무인비행기와 법률가의 과제

강 효 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세 살배기 제 아들은 자장면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독일 소식에 의하면, 언젠가는 드론(drone)이라고도 불리는 무인비행기가 배달하는 자장면을 먹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류회사 DHL은 지난 9월 무인비행기를 이용하여 독일 북동부의 항구도시로부터 북해의 외딴 섬까지 구급약을 배달하였다고 합니다.

무인비행기는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활용될 것입니다. 문화재 보호, 농작물 관리, 실종자 수색, 그리고 밀입국 방지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눈썰미 좋은 축구 애호가께서는 올해 월드컵 중계를 시청하시면서 브라질 정부가 축구장 상공에 질서 유지를 위해 띄워 둔 무인비행기를 발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조칼럼에서 무인비행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인비행기의 보급이 법률가들에게 안겨줄 만만치 않은 과제들 때문입니다.

우선 토지 소유권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 위의 천국(天國)까지 소유한다."는 법언은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유래합니다. 이 법리는 영미의 보통법으로 수용되어 수백년 동안 구부러진 나뭇가지나 기울어진 담벼락을 둘러싼 이웃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등장한 20세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미국 의회는 1926년 법률을 제정하여 500피트 이상의 상공을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지정하여 토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연방항공청에 강력한 규제권한을 부여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46년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지표로부터 83피트 상공까지 미친다고 판시하면서 그 이하로 비행한 공군기로 인하여 닭들이 폐사한 사안에서 양계장 주인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US v. Causby). 그래서 미국 산업계는 연방항공청의 규제권한도, 토지 소유권도 미치지 않는 공간인 83피트 초과 500피트 미만의 고도로 비행할 무인비행기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앞마당에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날아다니는 잠자리를 감상하던 토지 소유자에게 무인비행기는 결코 반갑지 않은 손님일 것입니다.

무인비행기를 이용한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외국의 일부 수사기관은 무인비행기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한 눈에 조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시간 체공이 가능한 무인비행기로 피의자를 추적한다면, 쉽사리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무인비행기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는 무인비행기에 안면인식과 적외선감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되면, 시민들이 24시간 감시당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무인비행기로 수집한 막대한 정보가 수사 외의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기업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을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지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특정된 목적에 따라 무인비행기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처럼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도 그 보유기간 등에 관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인비행기의 경우처럼 기술의 발달은 늘 법률가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합니다. 돌이켜 보면, 건축기술의 발달은 고층 주거지역에서 일조권 분쟁이 발생한 배경이 되었고, 의료기술의 발달은 연명치료의 한계 설정이라는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국경을 초월한 사이버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국가 간의 단속권한 조정과 같은 문제는 애당초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법부는 고도의 기술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인 법의 생명력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기술의 발달에 따라 변화하는 삶의 모습에 주목하고, 이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법해석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판사들의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제가 무럭무럭 자라난 아들과 함께 무인비행기가 배달해 온 자장면을 먹을 그 날에도 말입니다.

기 고

반려동물과 더불어 힐링하는 공원 산책

박 평 식
광주시 5·18기념문화센터 관리담당관

며칠 전 어느 여성 민원인이 다소 격앙된 어조로 항의 전화를 걸어왔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5·18기념공원을 찾아 숲길을 거닐며 심신의 피로를 풀고 내일을 위한 재충전의 기회를 갖곤 하는데, 요즘 부쩍 늘어난 애완견들 때문에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지경이라며 해결책을 주문했다. 목줄이 풀린 크고 작은 애완견들이 천방지축 날뛰며 여기저기 오물을 배설하여 산책 나온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안겨주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달려들어 공포감을 준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이러한 민원전화를 받을 때마다 5·18기념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으로선 착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시민들의 자각과 협조 외엔 현실적으로 뾰쪽한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5·18기념문화센터에서는 오래 전부터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관리를 위하여 전 직원이 업무 외로 매일 2회 이상 순찰을 하며 반려견을 대동한 주민들을 상대로 계도에 나서고 있다. 또한 공원 곳곳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애완견에게 목줄을 채울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산책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민원인께 알리고 양해를 구했으나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못했다.

숭고한 광주 5·18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조성된 상무지구 5·18기념공원에는 오월루, 전통연못, 5·18 현황 조각 및 추모승화공간이 하나의 조형 예술품처럼 짜임새 있게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다양한 수목(70여 종)과 초화류(22여 종)가 흡사 초록의 비단처럼 잘 가꾸어진 잔디밭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 외에도 무각사 앞 주차장에서 시작되어 숲 속으로 이어진 1,350m의 둘레길은 선선한 가을을 맞아 아침저녁으로 많은 시민들이 걷기에 나서는 등 건강 산책 코스로 각광받고 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구상나무, 피고지고 또 피는 나라꽃 무궁화, 겨울을 대표하는 동백, 상사화와 구별이 쉽지 않은 꽃무릇 등이 저마다의 자태를 뽐내며 지나가는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공원은 갑갑한 도심의 일상에 지친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휴식처이다.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다. 울창한 숲길에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고, 활기차게 걷다보면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혼자도 좋고, 친구나 가족이 함께 찾아도 좋다. 더욱이 5·18기념공원에는 이러한 공원의 순기능 외에도 한국 민주주의의 성소(聖所)라는 각별한 의미가 부여된 곳이다. 공원에 발을 들여놓는 것만으로도 저절로 옷깃이 여며지는 한국 민주주의의 자존심이자, 광주 시민의 자랑인 것이다.

이처럼 소중한 공원을 보존하여 자손만대에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공원의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라도 자신의 재산처럼 아껴야 한다. 자신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공중의식을 지켜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누가 지적하지 않더라도 애완견을 동반한 방문객은 반드시 목줄을 매고 배설물을 수거하기 위한 배변봉투를 항상 휴대해야 한다. 꽃을 꺾거나 잔디밭에 휴지나 음식물 찌꺼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지양해야 한다. 그것이 자랑스러운 문화시민으로서의 긍지요, 나아가서는 우리의 환경과 생태계를 깨끗이 보존하고 유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광주정신으로 조성한 5·18기념공원이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세계적인 명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와 동참이 있어야 할 것이다.

社 說

선거구 논의, 지역의 대표성도 고려해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는 입법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선거구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광주는 북구을이 상한 인구를 초과했지만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동구는 인구가 10만1656명으로 하한 기준에 미달, 폐지·통합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남에서는 순천·곡성이 인구 30만8182명으로 상한 기준을 초과, 분구가 가능한데 반해 여수갑(12만5657명), 고흥·보성(11만5800명), 무안·신안(12만5488명)은 하한 기준보다 낮아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거구 기준으로 광주에서 1곳, 전남에서 2곳가량 축소가 우려된다. 다시 말해 광주·전남에서 국회의원 3명이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전북은 4곳, 대구·경북 7곳이 하한 기준에 미달한 반면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은 21곳이 상한 기준을 초과해 영호남 정치의 위축 및 수도권의 정치 집중화가 심화될 전망이다. 특히 기준 하한 지역이 대부분 농어촌으로, 그만큼 대표성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는 농어촌은 현실적으로 정치적 보호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누더기 선거구'를 만들어 지역의 대표성이 사라지고 선거 때마다 지역간의 갈등만 유발해온 사실이다.

인구 1인당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이유로 내린 헌재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지역의 입장에선 미래가 암담하다.

따라서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논의 과정에서 표의 등가성과 함께 지역 대표성 등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전체 지역구·비례대표 수 조정,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농민피해 입히고도 제 식구만 감싸는 농협

농협 간부 비리로 인해 애꿎은 농민들이 100억 원대의 지원금이 중단되는 피해를 봤다고 한다. 그런데도 농협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간부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니 후안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지난달 30일 광주고법에서는 허위 서류 등을 작성,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묵은 쌀을 햅쌀에 섞어 파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해남 옥천농협 전 조합장 A씨와 전 미곡종합처리장 B상무, C소장, 전 농협중앙회 양곡센터 팀장 등 6명의 항소심 심리가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8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조합장의 경우 징역 3년 6월, B상무는 징역 2년 6월 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한 상태다.

그동안 이들 농협 간부들의 비위 행위로 인해 옥천농협과 조합원들은 13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본 것은 물론 농림식품부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받았던 연간 10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이 끊겨 신규사업이 중단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또 묵은 쌀을 섞어 팔면서 해남 쌀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기도 했다. 그로 인해 매년 250~300억 원의 매출고를 올렸던 옥천농협의 쌀도 한때 이마트에서 퇴출당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날 심리에서 농협은 비위 간부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의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신규사업만 중단됐을 뿐 벼 수매자금 과 농기계 구입자금은 지원되고 있다며 제 할 일 다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농협인가. 농민들에 입힌 막대한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식구만 감싸는 농협의 비양심적 행태에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농협의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 만큼 추락했다. 통렬한 자기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재무장하지 않는다면 농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별 헤는 밤

스타파티(Star Party)는 은막(銀幕)이나 브라운관 '스타'들의 '파티'가 아니다. 별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천문가들의 친교(親交)모임을 뜻한다.

최근 '별 볼일 있는' 200여 명의 천문인들이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반디별 천문과학관 인근 주차장에 모였다. 온라인상에서 닉네임으로만 알고 지내던 고수들을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반가움을 나눴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사귄 것처럼 스스럼없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자신의 애기(愛機)와 새로운 기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나이나 지역을 뛰어넘어 '별을 좋아한다'는 것. 직접 유리를 갈아 만든 자작 반사망원경을 비롯해 다양한 스타일의 천체망원경이 행사장을 빛냈다. '별쟁이' 아빠를 따라 나선 어린이들은 난생 처음 보는 우주의 신비로움에 탄성을 질렀다.

겨울에 다가서며 밤하늘의 별자리도 어느새 바뀌었다. 견우와 직녀의 오작교 전설이 깃든 '여름 대삼각형'이 서쪽으로 기울고 머리 위에는 안드로메다 공주와 페르세우스, 페가수스 신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 또 동쪽으로는 사냥꾼 오리온이 머리를 내밀었다.

오는 12일, 유럽우주국(ESA)이 쏴 올린 '로제타 탐사선'이 '67P/추류모프-게라시멘코' 혜성 표면에 내려앉는다. 장장 10년 8개월 동안 60억㎞를 비행한 끝에 혜성 궤도에 도달했다.

혜성은 태양계가 만들어졌던 당시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서 '태양계의 타임캡슐'로 불린다.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던 '로제타석'(石)처럼 이번 탐사 역시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대나 '빅뱅(Big Bang=대폭발) 이론을 논하는 현재나 우주는 여전히 미지(未知)의 세계인 까닭이다.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가 별을 보다 시궁창에 빠지자 당시 사람들은 "한 치 앞도 못 보면서 어찌 멀리 있는 밤하늘의 일들을 알려고 하는가?"라고 놀렸다. 경제난과 정쟁 속에서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13억 유로(1조7294억원)를 들여 10년에 걸친 대장정은 놀랍고, 부럽기만 하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_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